

# 동아시아 변경 섬의 지정학과 냉전체제 성립기 국가폭력 발생의 구조\*

김민환\*\*

- I. 서론
- II. 동아시아 변방 섬의 보편적 지정학적 위상: ‘장벽’ 혹은 ‘교량’
- III. 동아시아 지역체제(regional regime)의 역사적 변동과 섬들의 위상 변화
- IV.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성립과 변경 섬에서 발생한 폭력들
- V.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1945년 일본제국의 해체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변경 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원인을 섬 자체의 지정학과 연관해서 찾아보려고 시도한다. 제주도에서 류큐열도를 거쳐 대만본섬과 금문도까지 연결되는 선상의 섬들은 동아시아의 지역체제가 변화될 때마다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의 운명이 변화하곤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성립될 무렵에는 이들 섬 모두에서는 혹독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섬에서 발생한 폭력은 국민국가의 국경선 확정에 따른 생활권(圈)의 분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섬들은 일본제국에 의해 통합되어 있었을 때는 변방이 아니었고 교류와 소통의 작은 중심지였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SNUAC-2013-001)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그러나, 일본제국의 해체 후 개별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 이 섬들은 모두 변방이 되었으며, 이전의 교류와 소통은 국민국가의 경계선 형성에 의해 중단되게 되었다. 생활권의 분리라는 상황적 폭력은 국민국가의 강도 높은 내적평정(internal pacification) 작업이 진행되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섬들에서 내적평정 작업은 냉전과 관련되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또한, 냉전체제 형성기에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containment)와 관련된 이 섬들의 지정학적 위치는 내적평정 작업 관련된 폭력들을 더더욱 증폭시켰다. 만약 이 섬들 중 한 곳이라도 잃게 되면, 아시아에서의 봉쇄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이 섬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야하는 곳이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겹쳐진 제주와 대만본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국가폭력을 겪었다.

주제어 : 동아시아 변경 섬, 지정학, 국가폭력, 생활권(圈)의 분리, 내적평정, 봉쇄

## I. 서론

이 논문에서는 1945년 일본제국의 해체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변경’ 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원인을 섬 자체의 ‘지정학’과 연관해서 찾아보려고 시도한다. 이 시기 동아시아의 변경 섬들에서는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행사한 매우 강도 높은 폭력이 발생했다. 오키나와전(戰) 전후(前後)의 폭력, 대만의 2·28사건, 제주도의 4·3사건 등은 이러한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비록 이런 강도 높은 폭력이 수반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앞의 세 사건과는 성격에 있어 약간 구분되지만, 명백하게 폭력적인 상황들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동아시아 변경 섬들 곳곳에서 발생했다. 여기에는 대만의 금문도와 류큐제도의 여러 섬들이 포함된다. 비슷한 시기에 폭력들이 발생한 섬들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면 대만의 금문도에서 시작해 대만 본섬, 류큐제도의 야에야마(八重山)지방, 오키나와 본섬, 류큐제도의 아마미(奄美)지방, 제주도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을 그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섬들의

‘선’에서 발생한 폭력의 발생구조인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런 폭력들의 원인을 대체로 개별적인 국민국가 차원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가령, 제주4·3사건이나 대만2·28사건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행했는데,<sup>1)</sup> 여기에서는 자국의 사례를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폭력의 사례와 연관해서 분석하기가 성격상 매우 어려웠다. ‘정부’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정부가 통치하는 영역 내의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점은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분석단위로서 국민국가를 절대시하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methodological nationalism)’에 대한 비판이 상식이 된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sup>2)</sup> 이런 폭력들에 내재한 공통된 ‘동아시아적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주어졌다. 또한, 금문도나 류큐제도의 여러 섬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방법론적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연구조차도 별로 없었다.

물론 오키나와, 제주, 대만 사례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흐름이 1990년대 말부터 생성되기는 했다. 1997년 2월 대만에서 ‘동아시아의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이라는 주제로 이 유사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1998년에는 제주4·3사건 50주년을 맞아 제주도에서 같은 성격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sup>3)</sup> 1999년에는 오키나와의 나하에서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광주항쟁 2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개최되었다.<sup>4)</sup> 2002년에는 일본 교토에서 2003년은 한국의 여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수에서의 국제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 이 국제회의들에서

1) 제주4·3사건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2003)를 발표했고, 대만2·28사건에 대해서는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가 『二二八事件研究報告』(1994)를 발표했다.

2)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1호, 2012, 40-42쪽.

3) 이 회의의 성과물은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4) 이 회의의 성과물들은 각각 정근식·하종문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삼인 2001과 정근식·김하림·김용의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2』, 삼인 2001로 정리되어 출판되었다.

동아시아의 냉전체제와 국가폭력, 민주주의의 문제가 ‘주변’의 시선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 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의 희생자들이 그 사건에 대한 소개 및 고발을 목적으로 한 글들이 다수여서 체계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기존 연구의 아쉬움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논문은, 이런 폭력들의 시기적·장소적·성격적 유사성을 단순하게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 공통된 ‘유사성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한다. 우선 장소적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아시아 변경 섬들의 보편적인 위상을 검토해보고, 다음으로 시기적 유사성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체제(regional regime)의 역사적 변동이 이 섬들의 지정학적 위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 냉전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성립기에 이 지역에서 ‘폭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정학적 구조들을 명확히 하면서 개별 폭력들의 사례들을 조망할 것이다.

## II. 동아시아 변방 섬의 보편적 지정학적 위상: ‘장벽’ 혹은 ‘교량’

변방의 섬은 보통 바다에 의해 고립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상정된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거나 외부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에서 이 섬들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요새’ 혹은 ‘피난처’로 인식되거나 죄인들을 가둔 ‘감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변방의 섬에 대한 이런 표상은 기본적으로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하며, 따라서 섬에 대한 인식의 절반만을 전할 뿐이다. 변방의 섬은 오히려 이런 조건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한 교류, 협력, 공생의 논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sup>5)</sup> “섬은 바다의 길을

5)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초의 서구 인류학자들에 의해서도 표방된 바 있다. 대표적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키고 새로운 문물을 전달하는 교량”<sup>6)</sup>이기도 한 것이다. 육지가 아닌 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인식은 어쩌면 상식적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교량으로서의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장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 과거 류큐왕국(현재 일본의 오키나와현)이었을 것이다. 류큐왕국의 슈리성(首里城) 정전(正殿)에 걸려 있던 ‘만국진량의종(萬國津梁の鐘)’에는 “류큐국은 남쪽 바다의 경승지에 있으며, 조선의 뛰어난 점을 본받아 중국 및 일본과 대단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솟아나 있는 이상의 섬이다. 배로 만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다른 지역의 귀한 보물들이 넘쳐난다”<sup>7)</sup>고 써어 있는데, 이는 섬나라 류큐왕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다리’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최근 ‘한국해양사’ 연구의 성과에서도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섬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바닷길에 의한 ... 특유의 문화적 네트워크가 존재”<sup>8)</sup>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어 있었다. 가령,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와 송환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난사고를 당해서 타국의 영역으로 표착한 경우는 해당국의 관청으로부터 밀입국, 밀무역, 해적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받게 되고, 표류인임이 증명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송환된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이 국제 관계의

---

으로 것으로 브로니스라브 말리노브스크, 최협 역,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전남대 출판부를 참조할 것.

- 6) 진필수, 「센카쿠(다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에 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비교민속학』 제 47집, 2013, 302-303쪽. ‘교량’과 ‘장벽’이라는 표현도 이 논문에서 차용하였다.
- 7) 원문은 “琉球國は南海の勝地にして、三韓の秀をあつめ、大明をもって輔車となし、日域をもって唇齒となる。この二中間にありて湧出せる蓬萊の島なり。船楫をもって万國の津梁となし、異産至宝は十方刹に充滿せり”이다.
- 8)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2012, 민속원, 12쪽.



를 하게 된 계기가 대사도(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로 홍어를 구입하기 위해 간 것 때문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문순득을 비롯한 우이도 사람들이 그러한 교역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sup>10)</sup>었던 것이다. 요컨대, 육지에서 아무리 바다와 섬을 통제하려고 해도 섬의 교량으로서의 기능 그 자체를 억제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껏 해야 이 기능의 공적인 독점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는 제주도나 대만본섬, 그리고 금문도가 교량으로서 기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 섬은 모두 표류민 송환체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였다. 한국의 표류기록에서 표류자들의 출발지로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곳은 제주도인데<sup>11)</sup>, 이들이 표착해간 곳은 류큐왕국 이외에 중국본토의 장사진(長沙鎮)이나 영파부(寧波府), 일본의 여러 섬, 대만본섬이나 대만본섬에 가까운 팽호부(澎湖府) 등이었다. 심지어 베트남까지 표착해간 경우도 있었다. 금문도는 해외 중국 화교가 해외이민을 떠나는 출발지였다. 16~18세기 중엽 이미 해외로 나가 생계를 도모한 금문 사람이 있었으며, 19세기 중엽부터 금문의 해외이민의 규모는 확대되기 시작했고 20세기 중엽 전후까지 이어졌다.<sup>12)</sup> 이처럼 류큐왕국이나 금문도처럼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던 제주도처럼 ‘장벽’으로 인식되던 동아시아 섬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었다.

10) 최성환, 위의 책, 2012, 91쪽.

11) 최성환, 위의 책, 2012, 26-27쪽의 <표 1>과 31-32쪽의 <표 2>를 보면 출발지가 제주인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여기에 대해서는 지앙뵈웨이(江柏燁), 「변경(邊界)과 과경(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면(金門) 지역사(區域史) 연구」,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통권 6호) 2013, 를 참조할 것.

### Ⅲ. 동아시아 지역체제(regional regime)의 역사적 변동 과 섬들의 위상 변화

#### 1. ‘조공-책봉’체제에서 ‘제국-식민지’체제로

바다에 대해 닫힌 질서를 부여한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지역체제(regional regime)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양 세력과의 조우를 통해 붕괴해 갔다.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기하였다.

일본의 경우, 186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이후 일본은 1879년의 ‘류큐처분’을 통한 류큐(오키나와)의 식민지화, 1894년 조선의 동학농민전쟁으로 비롯된 청일전쟁과 이를 통한 대만의 식민지화, 1904년의 러일전쟁과 1910년 이전의 “조선 식민화전쟁(의병투쟁)”<sup>13)</sup>을 통한 조선(한국)의 식민지화, 1931년의 ‘만주사변’을 통한 만주의 식민지화(만주국의 건국), 1937년의 중일전쟁과 이후의 태평양전쟁을 통한 중국본토의 일부 및 남양제도의 식민지화 등 연속된 폭력과 전쟁을 통해 ‘제국’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갔다.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금문도는 일본의 점령지가 되었다. 일본이 제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동안 한반도는 ‘식민지’로 전략했으며, 중국은 아편전쟁 및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반식민지’로서 위상이 추락했다. 신해혁명 등을 통해 근대적 국민국가로의 온전한 전환을 시도했으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그 후 일본의 침략에 의해 만주지방을 잃게 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결국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지역체제는 일본제국 중심의 ‘제국-식민지’체제가 중심이 되었다.

13) 정근식, 『한국의 전쟁지역과 기념: 진실과 화해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평화발전 국제학술대회 2009년 자료집,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쟁기억』, 2009, 212쪽.



## 2. 요동치는 제국의 판도와 변경의 정치학

류큐왕국, 대만, 한반도가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됨에 따라 동아시아의 바다는 그야말로 일본제국의 ‘내해(內海)’가 되었고,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본섬, 금문도를 연결하는 선 위의 섬들은 모두 일본제국의 국경 안에 존재하는 섬이 됨으로써, 해군에 기반한 조공-책봉체제 시기와 비교했을 때, 장벽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교량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어느 한 시점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문도가 일본제국의 판도 안에 들어온 1937년까지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 어느 한 섬만 일본제국의 판도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 섬들은 각각 장벽으로서 기능했다. 가령, 일본이 1872년에 류큐왕국을 폐지하고 류큐번(藩)을 설치하였을 때, 류큐열도와 대만본섬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다. 이 국경선은 1874년 일본이 ‘대만 출병’을 통해 류큐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더욱 강고해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879년에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함(廢藩置縣)으로써 국경선을 확고히 하였다.<sup>14)</sup> 그러니까, 1872년에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1894년까지 대만본섬과 류큐열도의 제일 남단인 요나구니섬(与那國島)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장벽이 된 셈이다.

비록 22년 동안만 지속된 국경선이지만, 이 국경선은 전근대 시기의 국경선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강고한 국경선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특징은 확정된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 통치성에 있다. 이 때문에 국민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의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하고자 주장하는 유일한 인간공동체인 것이다.<sup>15)</sup> 또 배타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

14) 이를 ‘류큐처분’이라고 한다. 결국 ‘류큐처분’은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던 일본이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누려왔던 류큐 지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편입시킨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나미히라 츠네오, 「오키나와 근대사를 생각한다」,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논형, 2008과 강상규,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한반도와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논형, 2008을 참조할 것.

들의 이동, 특히 ‘월경(越境)’은 아주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장치들, 가령, 여권과 비자, 도항증 등 이동하는 이의 신분과 이동의 이유·일정과 목적지를 확인하고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문서적 장치들과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자 수용소, 난민수용소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국가의 영토 및 영해 개념은 그 경계가 그어지기 이전부터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지역적 교류의 네트워크와 그 속에서 영위되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sup>16)</sup>

이러한 예를 동아시아에서는 홋카이도와 환오호츠크 해역의 육지와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아이누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누들은 홋카이도와 환오호츠크 해역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교역·교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 왔다. 그런데, 19세기 말 이 지역을 일본과 러시아가 국민국가적 영토논리로 나눠 가지면서 이 두 나라는 강력한 국경선을 설치했다. 국경선의 설치로 아이누 공동체는 일본과 러시아 영토로 각각 편입되어 반분될 수밖에 없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왜냐하면, 과거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지역이 국경선의 설치 이후 각각 다른 국민국가의 ‘변경’이 되었고, 이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중심’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sup>17)</sup> 이 과정에서 오호츠크해를 가로지르면서 ‘교량’ 역할을 하던 섬들은 당연히 ‘장벽’이 되고 말았다.<sup>18)</sup> 이처럼 근대 국민국가는 확고한 경계선을 형성함으로써 근대 이전에 다양하게 존재하던 다양한 중심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변경으로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15) 막스 베버, 임영일 외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선집』, 까치, 1991, 208쪽.

16) 진필수, 앞의 논문, 265쪽. 이 논문에서 ‘변방’이라는 표현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전 각 나라의 주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국민국가의 배타적인 경계선 확정과 관리 때문에 ‘창조’된, 국경주변의 지역은 ‘변경’으로 표현하였다.

17)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테사 모리스-스즈키, 임성모 역,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아이누와 식민주의』, 산치럽, 2006을 참조할 것.

18) 이것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분쟁의 대상이 된 ‘북방4개섬’ 문제의 기원이다.

국경선을 확정함으로써 변경을 ‘창조’하는 국민국가의 논리를 일본제국의 확대과정에 대입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은 그 자체로 제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경은 제국의 판도변화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다. 이 말은 국경선을 따라 창조되는 변경의 위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시기에 따라 일본제국의 변경이 달라지며, 이전 시기에는 변경이었던 것이 그 이후 시기에는 변경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류큐처분이 완료된 1879년의 경우 오키나와(류큐열도)는 일본제국의 변경이 되지만, 대만을 식민지로 삼은 1894년에는 일본제국의 변경은 대만이 되어서 오키나와는 더 이상 변경이 아니게 된다. 또,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금문도 및 이에 면한 육지를 점령하게 되면, 또 ‘남양군도’를 점령하게 되면, 대만은 더 이상 변경이 아니게 된다. 이런 사정은 일본제국 육지의 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1910년 조선(한국)을 식민지화함에 따라 일본제국의 변경은 한반도가 된다. 그러나, 만주가 일본제국의 판도에 속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는 더 이상 변경이 아니게 된다.<sup>19)</sup>

일본제국의 영역 확대와 관련된 변경의 정치학은 정반대로 일본제국의 영역 축소 국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함에 따라 그 영역들이 점차 축소되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의 팽창기에 변경의 위치에서 벗어났던 지역들이 축소기에는 다시 변경이 되었다. 이 과정은 육지에서보다 바다 쪽에서 훨씬 두드러졌다. 물론, 팽창에서 축소까지의 시간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의 변화 자체가 가져온 충격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본토와 가까운 오키나와와 제주에서 이 시기 이런 변화의 충격은 매우 컸다.

19) 이 문제는 일본제국이 ‘내지(內地)’와 ‘외지(外地)’를 구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일본제국에서 이 구분은 그 영토가 기본적으로 일본제국의 변경선 안으로 얼마나 일찍 포함되었는가 기준이 되었다. 1920년대까지 홋카이도와 그 주변 지역과 류큐열도는 ‘내지’로 간주되었고, 대만과 조선은 외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대만과 조선이 더 이상 변경이 아니게 되면, 대만과 조선은 단순한 외지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

### 3. 일본제국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동아시아 섬들의 위상 변화

일본제국과 관련된 변경의 정치학을 동아시아 섬들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제주도의 경우,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에 따라 일본제국의 관도 속에 포함되게 된다. 류큐왕국과 대만본섬이 이 시기에 이미 일본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일본제국으로의 편입은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의 바다가 일본의 앞마당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변방이었던 제주도는 일본제국으로 편입되면서 한반도가 아니라 제국일본의 내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1918년에 제주-오사카 사이에 처음으로 정기여객선이 운항되었다.<sup>20)</sup> 일본정부의 보조에 의한 명령항로로 개설된 이 뱃길에 첫 취항한 여객선은 함경환(咸鏡丸·500t)이었다. 1924년에는 강원환(江原丸·720t), 복견환(伏見丸·700t)이 운항했으며, 1930년대에는 군대환(君代丸·930t), 경성환(京城丸·1,200t), 북목환(伏木丸·1,600t) 등이 대체 운항했다. 제주-오사카 정기항로는 제주도의 값 싼 노동인력을 일본 오사카로 이동시키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이 배들은 제주항 외항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할 때에는 애월·한림·고산·모슬포·서귀포·표선·성산포·김녕·조천 등 섬을 한 바퀴 돌면서 포구마다 종선을 대어 승객을 실어 날랐다. 오사카까지에는 꼬박 이틀이 걸렸지만 당시 제주인들은 한반도의 부산이나 목포보다 일본과의 왕래가 훨씬 빈번했다. 1924년 오사카 직업보도회가 오사카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출신지별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조선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61%인 609명이 제주도 출신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중반에는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인 5만 명이 일본에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1910년대 후반 이후 제주도는 조선의 변방이었지만, 일본제국의 변경은 아니었던 것이다.<sup>21)</sup>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류큐왕국은 1879년 ‘폐번치현’에 의해 일본

20) 아래의 내용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의 68쪽-70쪽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1) 이 시기 일본제국에서 생각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해서는 허호준,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 『한국민족문화』 2011, 40의 401-403쪽을 참조할 것.

의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동아시아 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제국에 속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내지’에 속했다.<sup>22)</sup> 가령, 일본본토보다는 뒤긴 했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징병령, 헌정 및 선거를 시행하는 등 법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일본문화로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황민화의 일환으로서 오키나와주민에게 ‘국민정신’을 주입하고 군국주의를 양성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방언을 폐지하고 ‘표준어’를 장려해갔다. 그러던 중 제1차세계대전 후 유럽경제가 부흥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도래했다. 그 결과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대공황(1929년)이 오기 전부터 오키나와는 파탄에 빠졌다. 당시 약 60만의 인구 중 7할이 농민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사탕수수 재배를 주로 하는 영세농가였고, 또 수출품의 8할을 사탕이 점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소철지옥’<sup>23)</sup>으로 불리는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본토로 출가노동(出稼)을 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수밖에 없었다. 또,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황군’이 되어 중국 등의 전선에 파병되었고<sup>24)</sup>, ‘남양군도’에서는 중간관료로서 일하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제국이 대만과 남양 등으로 침략하기 위한 다리였던 셈이다.

대만은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인해 청으로부터 할양받은 식민지였다. 사실 대만은 그 규모면에서 제주도나 오키나와와 비견될 만한 식민지는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 전체와 비교해야 될 정도의 크기이다. 따라서, 대만의 식민지사를 간략하게라도 모두 정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교량으로서의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하겠다.<sup>25)</sup> 1936년 해군대장 출신인 고바야시 세이조(小林躰

22) 오키나와에 관한 이 부부는 이지원,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자문화 인식』, 『사회와 역사』 제78집, 2008의 관련 부분(227-234쪽)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3) 소철은 유독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분도 많아서 물에 우려내어 독성을 빼내고 발효 및 건조 처리 등을 통해 식용으로 가능해진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과 일본 전국에 걸친 농산물 흉작으로 기근(飢饉)이 닥치자 가난한 집에서는 소철의 열매나 줄기를 식량으로 삼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 나머지 미처 독을 다 우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는 사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져 ‘소철지옥’이라 불렸다. 이를 계기로 일본 본토 및 남양군도, 중남미로의 이민이 더욱 촉진되게 되었다.

24) 그 이전 러일전쟁에 오키나와인들 중 일부는 군인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造) 대만 총독은 취임 후 ‘황민화, 공업화, 남진기지화’의 3대 시정방침을 표방하였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지속적인 침략정책을 펼치던 일본제국 전체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대만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이었다. ‘황민화’는 대만인을 더욱 철저하게 ‘황국민’으로 동화시켜 대만을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노동력의 공급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공업화는 종전 농업위주의 대만 경제를 공업중심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며, ‘남진기지화’는 대만의 지리적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남양과 중국 남부를 향한 침략기지로 삼자는 것이었다. 1942년 4월부터는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대만에서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이어 1943년 8월부터는 해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주목할 것은 대만에서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자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 지원병에 합격하기 위해 혈서까지 쓰는 풍조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 후 전황이 악화되어 지원병만으로는 병력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일본제국은 1945년 초 징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전쟁에 동원된 대만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207,183명이나 되었고, 그 중 사망자만 30,304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중국대륙의 침략에 동원되었다.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7년에 금문도가 일본에 의해 점령되면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섬들 중 가장 늦게 일본제국의 판도에 속하게 되었다. 금문도뿐 아니라 금문도에서 가까운 중국대륙모두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에 금문도가 ‘변경’이 되었던 시기는 극히 짧았다. 오히려 금문도가 변경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의 국공내전의 결과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대만의 경우 1942년 이후 일본제국 축소기의 사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주로 일본제국 팽창기와 관련한 동아시아 섬들의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과정은 동아시아의 섬들이 모두 ‘교량’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물론, 이 섬들을 교량으로 삼아 움직인 것은 제국의 ‘중심’이었고, 이 섬들의 주민들은 중심과의 연관 속에서만 움직여왔다. 그러다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25) 이 부분은 손준식,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2002, 18의 관련 내용(21-24쪽)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참패 이후 일본제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 섬들은 다시 ‘장벽’이 되었다.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불침항모(不沈航母)’로서 군사기지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이 최종목표로 삼았던 일본본토로의 진격로(進擊路) 상에 위치한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전쟁말기 대규모로 섬 전체가 요새화된다.

오키나와는 2차대전 말기에 일본의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벌기인 ‘사석(捨石)작전’의 무대가 되었다. ‘사석’은 말 그대로 ‘버리는 돌’인데, 이 단어만큼 이 시기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이 작전이 준비될 때 오키나와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민간인이 총동원되었고, 그들은 이후 미군의 공격에 의해 직접 노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사상자가 전 주민의 1/3에 이를 정도의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인은 일본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키나와어(語)를 쓰는 사람은 군사기밀 보호를 명목으로 ‘스파이’로 몰아서 처형하였고, 무엇보다도 ‘천황’과 ‘조국’을 위해 죽기를 강요하여 ‘집단지결’의 참극을 낳기도 하였다.<sup>26)</sup>

제주도도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사석작전’의 무대가 되었다. 일본군 사령부가 제주도의 방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44년 10월 필리핀이 미군에 의해 함락되면서부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방비 책임은 해군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병력수도 수 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45년 초부터 전황은 일본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제주도 방비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일본 방위총사령관은 1945년 2월 9일 미군과의 본토 결전에 대비해 7개 방면의 육·해군 결전작전 준비를 명령했다. 작전 암호명은 ‘결호(決號)작전’. ‘결7호 작전’은 조선반도, 특히 제주도 방면의 방비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27)</sup> 이 때 일본군의 방침은 미

26)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의 35-43쪽을 참고할 것.

27)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의 58-63쪽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과정에

군이 제주도에 상륙했을 때 최후까지 싸운다는 이른바 ‘옥쇄(玉碎) 작전’을 상정하고 있었다. 만약 실제로 제주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오키나와전투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실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제국이 확대되어 더 이상 변경이 아니었던 오키나와와 제주는 이 무렵 다시 변경의 ‘요새’가 되어 참혹한 피해를 당했고 혹은 당할 뻔 했다. ‘교량’에서 ‘장벽’으로 기능이 변했던 것이다. 한편, 미군의 진격로에서 벗어나 있던 금문도와 대만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일본의 패배 이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 IV.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성립과 변경 섬에서 발생한 폭력들

##### 1. 일본제국의 해체와 새로운 경계 형성의 문제:

##### 민족주의와 냉전이라는 변수

1945년 일본의 패전은 일본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본제국의 해체는 동아시아에 제국-식민지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역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19세기 말에 완성되지 못했던 근대 국민국가에 기반한 국제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간 것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었다. 미국은 과거 일본 제국의 판도에 속해있던 각각의 지역을 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하여 각각의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의 기초로 삼았다.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고, 대만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민당에 의해 점령<sup>28)</sup> 혹은 ‘수복’되었다.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으며, 중국의 동북지방은 소

서 제주도민이 겪었던 고난 역시 이 부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28) 대만에 대한 국민당의 통치가 ‘점령’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논란거리이다. 그러나, 적어도 2·28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대만에 대한 국민당의 통치는 이민국에 대한 새로운 ‘점령’이다.



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중화민국’에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과제였다. 한편으로 이 과정에는 각국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개입하였다. 가령, 일본은 최대한 자신들의 ‘과거 영토’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중국은 자국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영토를 원했다. 이미 1942년 11월 25일 중화민국 정부 외무대신은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기를 희망하는 영토로 류큐제도, 만주, 타이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것은 그 이후에도 중국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sup>29)</sup> 한국의 경우, 경계와 관련된 민족주의적 열망의 핵심은 38선의 남과 북의 ‘통일’이었다.

민족주의적 입장과 맞물려서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경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동아시아의 냉전이었다. 경계 형성에 민족주의 이외에 ‘이념’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던 것이다. 특히 이 변수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이미 한국은 1945년 해방 당시부터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일 것으로 여겼던 분단은 냉전의 격화와 함께, 결정적으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장기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이 승리함에 따라 중국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지만, 대만은 국민당이 후퇴하여 중화민국을 세우게 되었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냉전적 ‘분단’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금문도의 경우, 1949년 중국공산군이 대만으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공격하였으나, 국민당군에게 패배를 당한 이후, 중국대륙과 아주 가까운 거리이지만, 대만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은 1979년까지 금문도 사람들에게 매우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29)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타이) 문제는 사실상 이때부터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오직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만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宮城弘岩, 「臺灣在住沖繩人からみた沖繩の日本復歸」, 沖繩を知る事典 編輯委員會 編, 『沖繩を深く知る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ツ: 東京, 2003을 참조할 것.

## 2.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containment)전략과 동아시아의 변경 섬의 운명: 지정학

1945년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계선 형성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섬들은 민족주의와 냉전의 영향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제주도는 나머지 섬들과 비교했을 때 민족주의와 관련된 영토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 중국의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과 오키나와를 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들에게 넘겨받길 원했다. 또한 일본은 ‘대일본’에서 ‘소일본’으로 축소될 때, 오키나와가 소일본의 영역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결국 대만은 중국에게 귀속되었고, 오키나와는 미군의 직접적인 점령지가 되었으며 1972년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었다. 이때 오키나와의 국제법상 지위는 매우 애매하였다. 오키나와는 독립국가도 아니었다. 또, 일본의 한 지방은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조에서 표현된 것처럼, 일본의 ‘잠재주권(residual sovereignty)’이 적용되는 지역이 되었다.<sup>30)</sup> 그러나, 이곳은 미국의 영속적 점령지역으로 미군이 직접 통치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오키나와의 모순된 국제법상 지위와 관련해서 쟁점이 매우 많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상태가 근대 국민 국가의 원리인 배타적인 단일 절대주권론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사실만 지적해 두기로 한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중국 및 일본과 분리하여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한 요인은 전 지구적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될 이 시기에 발견된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냉전체제가 형성될 무렵 미국의 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전략은 봉쇄(containment)이었다. 이것은 냉전(cold war)이라는 용어를 직접 낳은 전략이기도 한데,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무력 수단에 호소하기보다는 그 주위에 군사 기지망을 둘러싸서 포위만 하면 공산주의 세력은 자기분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31)</sup> 미국의 봉쇄전략과 관련해서 동아시아에서

30) 류큐열도에 적용되는 일본의 ‘잠재주권’이라는 타협적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는 Eldridge, Robert D., *The Origins of the Bilateral Okinawa Problem: Okinawa in Postwar U.S.-Japan Relations, 1945-1952*,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2001를 참조할 것.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오키나와였다. 미국은 원래 2차세계 대전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요새로 구축된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전략이 만들어지게 되자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할 군사 기지가 들어설 장소로 오키나와를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오키나와에는 이미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진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지를 만들 필요성이 더 적었던 장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키나와는 제주도부터 대만본섬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섬들 중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반영하는 말이 ‘오키나와는 태평양의 요석(要石, keystone)’이라는 것이다. 2차세계 대전 말 일본본토 수호를 위해 ‘버리는 돌’이었던 오키나와가 이제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사석’에서 ‘요석’으로의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체제가 제국-식민지체제에서 냉전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지정학적 변화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중요성 중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면, 제주도와 대만은 냉전체제의 동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오키나와와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는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오키나와와 마찬가지로 2차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건설한 군사기지도 존재하였다. 그만큼 제주도와 대만본섬을 연결하는 섬들의 선 가운데 위치한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위치는 핵심적이었다.

그렇지만, 제주도와 대만본섬의 지정학적 위치도 오키나와 못지 않게 중요하였다. 가령, 중국내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혹은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 이후에 이들 두 섬이 만약 ‘불게 변한다면’, 중국대륙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봉쇄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섬은 공산주의 세력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나아가는 ‘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본섬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모든 섬들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만 했다. 이 시점에 오면 이 섬들은 교량으로서의 성격을 거의 부정당하고 ‘장벽’으로서의 성격만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31) 봉쇄전략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김명섭, 「냉전초기 봉쇄전략의 탄생: 조지 F. 케난이 유일한 설계자였나?」, 『國際政治論叢』 제49집 1호, 2009를 참조할 것.

이 섬들이 장벽으로서만 기능하게 됐던 것에는 당연히 민족주의의 대두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이 제주도나 대만이 아닌 오키나와를 점령하여 지속적으로 통치한 것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를 제어할 정당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전후 자신이 새롭게 질서를 부여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생산해냈다. 일본학에 대한 고전으로 평가받는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은 사실 이와 같은 작업의 산물이었다.<sup>32)</sup>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 오키나와에 관한 조지 커(George Kerr)의 『오키나와: 섬사람들의 역사(Okinawa: The History of an Island People)』라는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키나와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직접 통치하고자 했던 당시 미국의 이해관계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제주에 관한 초창기 보고서에서 미국은 제주도가 과거 독립국이었으며, 언어와 풍속 등에서 한국본토와 매우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이 의견은 곧 철회되었다. 제주도가 한국에 통합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언어와 풍속 등에서도 한국본토와 무리없이 상호교류가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던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특히 2·28사건 이후로, 대만은 중국이 아니라는 ‘대만독립론’이 제기되었다. 이 당시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현재 이 세력은 대만의 정치세력 중 가장 강력한 측에 속한다. 이 세력이 가장 중시하는 외국인 중 한 명은 역시 조지 커였다. 그는 1965년 대만의 2·28사건에 관한 최초의 학술서적인 『배신당한 포모사(Formosa Betrayed)』를 남긴 사람이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배치되지 않는다. 대만독립론은 대만을 영구히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인식론으로서, 오키나와에 관한 조지 커의 연구나 제주도에 관한 초창기 미군보고서 등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동아시아의 이 섬들을 소위 ‘본국’에서

32) 여기에 대해서는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靑土社, 2005를 참고할 것.

분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 배경은 봉쇄전략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 섬의 구축이라는 의도였다. 이 세 섬 중 미국이 자신의 의도를 실행에 옮겨 성공한 것은 오키나와뿐이었다. 제주도와 대만은 한반도 및 중국대륙과 너무나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 3. 동아시아 섬에서 발생한 폭력의 층위와 폭력 발생의 구조

동아시아 지역체제가 국민국가에 기반한 냉전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섬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제 이곳에서 발생한 폭력의 양상을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변수, 즉, 민족주의, 냉전, 지정학이 서로 얼마나 얽히느냐의 관점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 차례이다.

#### 1) 경계선 형성이 야기한 일반적 폭력:

##### ‘생활권(圈)의 분리’와 ‘내적평정’

국민국가의 경계가 새로 그어지면 변경 역시 만들어지게 된다. 이 상황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한다. III장에서 살펴본 아이누 공동체처럼, 이 경계선이 이전에는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던 공동체의 한 복판을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 그 폭력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가 일본제국이 중심이 된 제국-식민지체제였을 때, 동아시아의 섬들은 상호 간에 직접 교류가 이루어졌던 아니면 제국의 중심과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던 기본적으로 큰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일부분이었다. 1945년 이후 이 섬들 사이로 국경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섬은 기본적으로 경계선이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폭력적 상황에 공통적으로 처하게 된다.

특히,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교류와 소통이 이어져오던 류큐열도와 대만 사이에 그어진 경계는 생활권(圈)의 분리라는 결과를 낳았다. 류큐열도는 모두 두 곳에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하나의 생활권에서 적어도 3개의 생활권으로 분리되었다. 류큐열도와 관련된 최초의 분할은 대만본섬과 요나구니섬 사이의 분할이었다. 1945년 10월 대만이 국민당 정권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대만과 요나구니섬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졌다. 요나구니섬은 현재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섬인데, 오키나와

본섬에서 520km, 이시가키섬에서 117km거리에 있다. 그러나, 대만으로 부터는 110km 떨어져 있어 오히려 대만과 가까운 섬이다.<sup>33)</sup> 요나구니 섬의 주민들은 ‘근대적 국경’이 그어지기 전부터 이미 대만과 오키나와 본섬, 멀리는 아마미섬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에도 대만과 요나구니섬 사이에도 수많은 교류가 있었다.<sup>34)</sup> 이런 상황에서 요나구니섬은 변방이 아니라 교역 및 교류의 작은 ‘중심지’였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대만과 국경선이 그어지자 상황은 변했다. 말 그대로 ‘변경’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요나구니섬의 인구는 불과 1,600명이지만, 1940년대 후반만 해도 요나구니섬의 인구는 12,000명-17,000명이었다. 60년 동안 전체 섬 인구의 90%정도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류큐열도의 2번째 분할은 1953년 12월 25일에 최종 결정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키나와전 이후 류큐제도의 전술·전략적 위치를 눈여겨 본 미군은 일본과 오키나와를 분리하여 오키나와를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고자 했다. 1946년 1월 29일 북위 30도를 기준으로 남쪽을 일본과 분리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정부와 협상을 통해 그 기준선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1951년 12월 5일에는 북위 29도 이북을 일본에 ‘반환’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미제도의 섬들은 오키나와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의 지속적인 요구로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인 1953년 12월 25일 북위 27도 이북을 일본에 반환한다. 이때 생활권이 같았던 아마미제도와 오키나와본섬은 결국 분리되었다. 아마미제도가 일본의 변경이 되었던 것이다. 오키나와본섬은 미군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주도는 과거 제국의 중심이었던 일본과의 연계가 끊어지자 혼란이

33) 요나구니섬과 관련된 내용은 아라사키 모리테루, 백영서·이한결 역,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창비, 2013의 105-140쪽과, 진필수, 앞의 논문, 2012의 관련 부분을 참조했다.

34) 여기에 대해서는 Matsuda, Hiroko, “Colonial Modernity Across the Border: Yaeyama, the Ryukyu Island, and Colonial Taiwa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6을 참조할 것.

발생하였다.<sup>35)</sup> 해방 이전 공산품의 40% 가량을 일본에서 구입해왔으나, 일본과의 정기여객선 뱃길이 끊기고 반입물품 제한과 대일 교역마저 통제를 받게 되자 심한 생필품의 부족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주에서 생필품을 두고 ‘장난’을 쳐 잇속을 챙기는 ‘모리배’들이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모리배 문제는 제주도민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계기 중 하나가 된다. 대만의 경우는 제주도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섬의 규모면에서 자급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대만은 충분히 컸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새로운 국민국가의 ‘변경’이 된 이 섬들은 새로운 ‘중앙’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민국가는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배타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폭력의 독점을 이루어야 하고, 정당성을 다투는 다른 세력들을 체계적인 배제해야만 한다. 이 과정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체계의 통일 등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국내평정(internal pacification)<sup>36)</sup>이라고 부른다. 모든 국민국가는 국내평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야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정평정은 ‘변경’을 성공적으로 ‘제압’해야만 마무리된다. 따라서 경계선에 의해 변방이 된 동아시아의 섬들은 구조적으로 가혹한 평정작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 평정작업이 가장 가혹하게 수행된 곳은 대만이었고, 그 정점이 대만2·28사건이었다.<sup>37)</sup>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50년 만에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대만은 중국에 반환됐고, 대민인들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기대 속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런 ‘광복’이 가져다준 기쁨은 차츰 가라앉으면서 대만민중들과 국민당 정부 사이에는 차츰 거리감이 생겨났고, ‘광복’ 후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 두

35) 제주도에 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70-72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6) 국내평정(internal pacification)에 대해서는 안쑤니 기든스,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의 215-227쪽을 참조할 것.  
 37) 대만에 대한 이 부분은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의 43-56쪽을 정리한 것이다.

집단의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50년간 중국대륙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대만인들과, 그 기간 동안 다른 역사적 궤적을 밟으면서 일본과 대결해 왔던 국민당 정부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이었다. 대만에 진주한 국민당 인사들이 보기에 1945년 당시 대만 및 대만인들은 외관상으로는 문화적으로 너무나 일본과 일본인을 닮아 있었다. 따라서 국민당정권은 대만인은 일제 교육에 심각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의 교화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대만인들이 보기에 자신을 통치하러 온 국민당정권의 관료와 군인은 너무 ‘미개’했다. 특히 군인과 경찰의 행패가 심했는데, 이들의 태도에 대해 “대만인들은 ‘개가 가니까 돼지가 왔다’며 불만과 실망을 표현했다.”<sup>38)</sup> 대만 ‘광복’ 이후 대만인들의 기쁨과 기대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민당정부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고, 날이 갈수록 분노가 축적되었다. 이런 축적된 분노가 1947년 2월 27일 발생한 전매국 담배 단속원의 도가 넘은 단속 행위를 계기로 대만 전역에서 폭발하게 된다.<sup>39)</sup> 타이페이에서의 대규모 항의시위로 출발한 2·28사건은 대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 일변도였다. 특히, 47년 3월 8일 오후 중국 본토에서 파견된 선발대가 基隆에 상륙한 직후부터 국민당 정부군에 의한 대만인 공격이 본격화됐다. 基隆에 상륙한 국민당 정부군은 구경하러 나와 있던 대만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것으로 이후 자신들이 대만에서 자행할 일들을 예고했다. 그 이후 전국적인 무력진압이 실시되었다. 무력진압이 끝나자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호구를 살살이 조사하여 의심분자를 체포하는 ‘청향(淸鄉)’작업이었다. 청향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당 당국은 거의 모든 집을 철저히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항상 약탈과 폭력, 성폭행 등이 자행되었다. 청향작업으로 실제 ‘항

38) 김정화, 「‘2.28 대만 민중항쟁’과 대만인의 ‘대만의식’」, 『사림』 제29호, 2008, 212-213쪽, 李筱峯, 김철수 외 역, 『臺灣民主運動 40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34-35쪽.

39) 2.28사건의 자세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二二八事件研究報告』, 時報出版·臺北, 1994와 張炎憲 外, 『二二八事件責任歸屬研究報告』, 財團法人 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臺北, 2006을 참조할 것.



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거의 빠짐없이 체포되어 처벌받거나 처형당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희생당했다. 무엇보다도, 청향작업은, 명목상으로는 '항쟁'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지만, 이보다는 향후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즉 이후 다시 국민당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숙아내는 데 더 큰 방점이 찍혀 있었다. 따라서 청향작업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주로 각 마을에서 여론을 주도할 만한 마을의 유력인사 혹은 지식인 등 대만사회의 엘리트층이었다. 청향작업에 의해 '의심분자'로 간주된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총살되어 효수되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처형된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곳을 알지 못해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만 2·28사건의 사망자 수는 추계자에 따라 국민당 자체 추계인 최소 5,000명에서 최대 10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보통 20,000명에서 30,000명으로 산정한다.

제주4·3사건도 사실 이러한 내적평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의 시작시점을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4·3사건이 '내적평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폭발로 파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대만본섬과 제주도에서의 내적평정 과정이 그토록 극단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나머지 섬들, 가령 요나구니섬이나 아마미제도에서는 물리적 경계선의 형성 이후 생활권의 분리라는 폭력적 '상황'은 발생했지만, 제주도나 대만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이 차이는 냉전에 의한 '비국민'의 형성 문제와 연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 2) 내적평정과 냉전의 결합:

### 심리적 경계선의 형성과 '비국민'의 제거

1945년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계에 민족주의와 더불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냉전이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변경 섬들에서 발생한 폭력에도 이 냉전적 요소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

하였다. 경계선 확정에 따른 생활권의 분리의 경우에도 냉전이 직접 작용할 경우, 폭력의 강도는 매우 높아진다. 한국전쟁 및 중국내전이라는 전쟁을 통해 경계선이 형성된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동아시아의 섬에서 가장 강도 높은 폭력을 수반해서 생활권의 분리가 일어난 곳은 당연 금문도였다.

금문도는 원래 중국의 하문(廈門) 등과 함께 복건성에 소속되어 있는 섬이다.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금문도는 복건성 일대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해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당연히 그들의 생활권은 대만본섬보다는 복건성 일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1937년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에도 이 주변 지역과 함께 점령되었기 때문에 생활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대만본섬과의 연계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배 이후 금문도는 대만과 함께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에 다시 속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 국민당군은 중국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에 패퇴를 계속하다 대만본섬으로 후퇴하게 된다. 그러나, 금문도는 여전히 대만의 중화민국의 영토로 남게 된다. 금문도가 대만에 남게 된 것은 중국 내전 당시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국민당군이 격퇴한 덕분이었다. 1949년 10월 인민해방군은 중국대륙과 타이완 섬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인 금문도를 공격하였으나(1949.10.24-10.26) 국민당군에 대패하여 대만본섬과 이 섬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지배가 굳어졌다. 이를 고령두(古寧頭)전투라고 부른다.<sup>40</sup> 고령두전투 이후 대만을 ‘해방’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재차 전쟁준비를 하였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금문도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군대가 한반도로 향하게 되면서 금문도에서의 지상전은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1954년 9월 3일 오후 3시에 시작되어 1955년까지 이어진 9·3포격전, 1958년의 8·23포격전 등 지속적으로 금문도에 공격을 가하였다. 특히 1958년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민해방군은 무려 47만발에 이르는 포탄을 이 섬에 쏟아부었다. 58년의 초기 포격전에서 200명에서 600명 사이의 군인

40) 고령두전투 및 그 이후의 823포격전 등 금문도에서 발생한 냉전적 열전에 대해서는 Szonyi, Michael,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2008의 chapter 2와 chapter 4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사상자와 140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58년 10월 6일 포격은 일단 멈췄으나, 1979년 12월까지 홀수일에는 포격하고 짝수일에는 포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포격은 홀수일 초저녁에 이루어졌는데, 금문도 주민들은 평상시의 삶을 계속하다 홀수일 초저녁이 되면 가까운 방공호로 들어가 몇 시간을 머물렀고, 그날 밤의 포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방공호에서 나오는 생활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금문도는 중국과의 연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만본섬과의 연계만이 남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동아시아의 섬들 중 가장 격렬한 ‘장벽’은 바로 이 금문도였던 것이다.<sup>41)</sup>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요나구니섬도 본격적으로 대만과의 국경이 통제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냉전적 열전 때문이었다. 앞에서 요나구니섬을 설명할 때, 1945년 직후부터 대만과의 연계가 끊어졌다고 서술했지만, 사실 1945년 이후 몇 년 동안 국경관리가 느슨했다고 한다. 이 느슨한 국경관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요나구니는 밀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요나구니에는 오키나와, 일본, 타이완, 홍콩 등의 암상인들이 모여들어 노점과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서고 요정도 번성했다.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던 미군은 국경관리를 엄격하게 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부터 유출되는 군수물자가 중국대륙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sup>42)</sup>(아라사끼 모리테루, 2013: 126)

금문도와 요나구니섬의 경우도 폭력적이지만, 특히 금문도의 경우 실제 전투가 발발했던 지역이어서 폭력의 강도가 매우 높았지만,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학살과는 다른 경우였다. 대만본섬의 2·28사건과 제주 4·3사건은 바로 자국 군대에 의한 자국민의 학살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폭력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 이 폭력들은, 앞에서

41) 금문도의 한 박물관에는 1944년 나귀와 함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용되었던 사람이, 1945년에는 국민당군에 의해, 1949년에는 중국공산당군에 의해 역시 나귀와 함께 끌려가 군대에서 생활했다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금문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42) 아라사끼 모리테루, 앞의 책, 2013, 126쪽.

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내적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높은 수준의 폭력이 발생했기에 이를 일반적인 내적평정만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폭력의 강도를 높인 계기는 역시 냉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냉전적 열전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국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다. 이 내부의 적은 철저히 제거되어야만 한다. 냉전체제 형성기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는 모두 내부의 적이 존재했다. 이들은 일종의 ‘비국민’<sup>43)</sup>인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빨갱이’였고, 대만에서는 ‘공비(共匪)’였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 내부의 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부의 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경계선’이었다. 어쩌면 냉전에서는 물리적 경계보다 ‘심리적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빨갱이’ 혹은 ‘공비’로 의심을 받는, 혹은 ‘빨갱이’ 혹은 ‘공비’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심리적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제거되어야 했다. 심리적 경계선과 물리적 경계선이 겹치는 제주도와 대만에서 바로 그 참혹한 국가폭력들이 실행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만의 2·28사건과 제주4·3사건은 일반적인 국민국가의 내적평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자위적 항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빨갱이’ 혹은 ‘공비’에 의한 폭도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순간, 대만인 혹은 제주도민은 제거되어야 할 ‘비국민’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국민당 정부는 대만인들의 봉기를 중국공산당의 조종에 의해 ‘어리석은’ 대만인이 일으킨 ‘폭동’ 혹은 ‘폭난(暴亂)’으로 간주했다. 일본통치 50년의 영향으로 대만인은 일본인에 의해 ‘노예화’

43) ‘비국민’이란 ‘국민의 자격’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 완벽하게 국민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내부’에 존재해야 의미가 있는 존재이다. 즉, 국민의 범주에 ‘포섭된 채 배제된 존재’인 것이다. 가령, 일본 식민지 시절의 ‘불령선인’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빨갱이’ 등이 이런 범주이다. 한국의 ‘비국민’을 다룬 논문으로는 강성현, 「‘아카’와 ‘빨갱이’의 탄생: ‘적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2013, 100집을 참조할 것.

되어 중국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공산당의 선동이 더해져 대만인들이 ‘국가’에 대해 모반을 꾀했다는 것이다.<sup>44)</sup> 국민당은 이런 식으로 2·28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자신들에게 두지 않고 철저하게 대만인들과 중국공산당에게 전가했다.

1947년 3월 1일 ‘3·1절 발표사건’에서 출발한 제주4.3사건에서 미군정 역시 ‘미국에 대한 반대=공산주의 지지’로 간주하였다.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이 인지하고 있던 것처럼,<sup>45)</sup> 미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 모두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자신들에 대한 반대를 ‘친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진압을 감행했다. 공산주의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 국가의 후방에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 발생한 것은 미군정 및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주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런 인식이 3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참혹한 진압을 결정하게 했던 것이다.

### 3) 동아시아적 차원에서의 봉쇄:

####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한 폭력

국민국가 차원에서 물리적 경계와 심리적 경계를 지키기 위해, 즉, ‘변경의 진압’과 ‘비국민의 제거’를 위해 변경의 섬들에서 극단적으로 강력하게 행사된 국가폭력은,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전체의 봉쇄전략과 관련된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봉쇄’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미국에게 제주도에서 발생한 ‘불온한 움직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거의 유사한 전략적 요충지였다.<sup>46)</sup> 8·15 직

44) Lai·Myers·Wou, *A Tragic Beginning: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1947*, Standford Univ. Press: California, 1991, pp. 4-6, 陳翠蓮, 「歷史正義的困境: 族群議題與二二八論述」, 『歷史館學術集刊』第16期, 2008, pp. 184-185.

45)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190-198쪽.

46) 현재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제주도의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 제주도가 군사기지 설치와 관련되어 논의에 오른 것은 적어도 4차례 이상이다. 실질적으로 기지가 설치된 것은 2차대전 말의 시점이다. 일본은 일본본토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본섬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역을 군사기지화했

후에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1946년 10월 21일 AP통신은 뉴욕 발 기사로 “조선 제주도가 장차 서부 태평양 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터(Gibraltar·지중해의 전략요충지)’화 할 가능성이 있다”<sup>47)</sup>고 타진, 국내 언론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47년 3월 28일 이승만(李承晩)은 방한중인 미 육군성 차관 드래퍼(Draper)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자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가 수립되면 한국인들은 매우 기꺼이 미국이 제주도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sup>48)</sup> 또한 1949년 5월 제주를 방문한 유엔 한국위원단의 보고서에도 “대한해협 남쪽 그리고 일본의 남부와 중국의 북부 해안에 위치한 제주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명백하다”<sup>49)</sup>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1949년 8월 진해에서 열린 이승만-장제스(蔣介石) 회담에서 중국 측은 중국 본토를 공격할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단이 주둔할 공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한 미국대사 무쵸(Muccio)가 본국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sup>50)</sup> 이처럼 동아시아 전체

---

다. 또 앞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 이후 냉전적 갈등이 깊어졌을 때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미군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여 일본의 영토가 된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제주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미군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군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영신,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12년 봄호를 참조할 것.

47) 『漢城日報』, 1946년 10월 22일;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59, October 31, 1946.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7쪽에서 재인용.

48) “Conference between Under Secretary Draper and Mr. Syngman Rhee, March 28 1948,” Memorandum for Record, Department of the Army.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8쪽에서 재인용.

49) “Report on Trips to the Provinces Affected by Recent Disturbances,” Enclosure to Despatch No. 358, dated June 17, 1949, from American Embassy, Seoul, Korea.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7쪽에서 재인용.

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II: Korea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p. 1080-108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7쪽에서 재인용.

에서 차지하는 제주도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제주도가 ‘붉은 섬’으로 변하는 것은 미군정에게 생각도 하기 싫은 악몽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봉쇄’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키나와와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공산주의를 막는 ‘장벽’으로서의 동아시아 섬들은 냉전체제가 성립함에 따라, 특히 중국대륙이 공산화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이곳은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야 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최대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 목숨을 대가로 치렀다.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오키나와는 일본본토를 지키기 위한 ‘사석’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이미 제2차세계대전 말기의 오키나와전을 통해 24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1945년 이후 오키나와는 중국대륙을 봉쇄하는데 있어 ‘요석’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다시 많은 폭력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주로 오키나와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오키나와에 지속적으로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오키나와에 미군이 기지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 1953년 4월 3일 포령109호 ‘토지수용령(The Land Acquisition Procedure)’의 공포 이후, 오키나와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갈등은 일상화되고 첨예화되었다.<sup>51)</sup> 이 토지수용령에 근거하여 오키나와 여러 곳에 무장군인을 출동시켜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억누르고,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워 토지 접수를 실시하였다. 폭력적인 토지 탈취에 대해 각지의 농민들은 목숨을 건 저항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 전체 미군기지의 약 4분의 3이 일본 국토면적 0.6%인 오키나와에 집중해 있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다.

## V. 결론

지금까지 냉전체제 형성기 동아시아의 변경 섬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구조들을 이 섬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서 살펴 보았다. 제주도에서 류큐열도를 거쳐 대만본섬과 금문도까지 연결되는 선상의 섬들

51)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역,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2008, 35-37쪽.

은 동아시아의 지역체제가 변화될 때마다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섬의 운명이 변화하곤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성립될 무렵에는 이들 섬 모두에서는 혹독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국민국가의 국경선 확정에 따른 생활권의 분리라는 일반적인 폭력이 가장 가벼운 폭력일 정도였다. 생활권의 분리, 내적평정의 발생, 여기에 더해진 냉전에 기반한 ‘비국민’의 제거, 공산주의 세력의 ‘봉쇄’와 관련된 타협될 수 없는 지정학적 폭력들이 모두 더해진 제주도와 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국가폭력을 겪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장벽’이 되었다.

문제는 이 섬들이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변화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폭력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몇몇 섬들을 두고 영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생각하기에 이 분쟁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민국가 사이의 분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토분쟁의 ‘동아시아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냉전체제 성립기의 동아시아 변경 섬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봉쇄전략 속에서 이 섬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봉쇄의 주된 대상이었던 중국이 미국과 맞설 정도로 그 위상이 커지면서, 이 봉쇄를 ‘돌파’하는 것을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벌이고 있는 섬을 둘러싼 영유권분쟁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다.

<그림 2>는 중국해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활동영역인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을 표시하고 있다. 1차 목표인 제1열도선에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본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열도선을 확보하려면 중국은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본섬 등 현재 자신을 봉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들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중국은 이 주변의 ‘섬’들, 가령 센카쿠/다오위다오, 이어도, 남사군도 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의 이러한 돌파시도가 폭력적인 수단을 향후 동반하게 되면, 이 섬들은 직접적으로 그 폭력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 섬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장벽’에서 ‘교량’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





<그림 5> 중국의 열도선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출처: 『시사인』 336호 커버스토리 「오바마 시진핑 “통화”였느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3>, 2014.4.30. 검색)

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섬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폭력의 발생구조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환기하는 것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다.

## 참고문헌

- 「오바마 시진핑 “통화”였느냐」, 『시사인』 336호 커버스토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63>, 2014.4.30. 검색)
- 강상규,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한반도와의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논형, 2008.
- 강성현, 「‘아카’와 ‘빨갱이’의 탄생: ‘적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100집, 2013.
- 김명섭, 「냉전초기 봉쇄전략의 탄생: 조지 F. 케난이 유일한 설계자였나?」, 『國際政治論叢』 제49집 1호, 2009.
-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정화, 「‘2.28 대만 민중항쟁’과 대만인의 ‘대만의식」, 『사림』 제29호, 2008.
- 나미히라 츠네오, 「오키나와 근대사를 생각한다」,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논형, 2008.
- 막스 베버, 임영일 외 역,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선집』, 까치, 1991.
- 박배균,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제47권 제1호, 2012.
- 브로니스라브 말리노브스키, 최협 역, 『서태평양의 항해자들』, 전남대 출판부, 2013.
- 손준식,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통치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18, 2002.
- 아라사키 모리테루, 백영서·이한결 역,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창비, 2013.
- 아라사키 모리테루, 정영신 역,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2008.
- 안소니 기든스,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삼지원, 1991.
- 李筱峯, 김철수 외 역, 『臺灣民主運動 40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 이지원,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자문화 인식」, 『사회와 역사』 제78집, 2008.
- 정근식, 「한국의 전쟁기억과 기념: 진실과 화해의 가능성과 한계」, 동북아평화벨트 국제학술대회 2009년 자료집,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전쟁기억』, 2009.

- 정근식·김하림·김용의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2』, 삼인, 2001.
- 정근식·하중문 책임편집,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삼인, 2001.
- 정영신, 「동아시아 지평에서 바라 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12년 봄호, 2012.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 제주4·3연구소 엮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 지양휘웨이(江柏煒), 「변경(邊界)과 과경(跨界): 동아시아 시선 속의 진먼(金門) 지역사(區域史) 연구」,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통권 6호), 2013.
- 진필승, 「센카쿠(다오위타이)제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이시가키시 의회의 과잉애국심과 지역활성화의 논리: 국경의 섬에서의 교량론과 장벽론」, 『비교민속학』 제47집, 2012.
- 최성환, 『문순득 표류 연구: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와 세계인식』, 민속원, 2012.
- 테사 모리스-스즈키, 임성모 역,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아이누와 식민주의』, 산 처럼, 2006.
- 허호준, 「19-20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인식」, 『한국민족문화』 40, 2011.
- 宮城弘岩, 「臺灣在住沖繩人からみた沖繩の日本復歸」, 沖繩を知る事典 編輯委員會 編, 『沖繩を深く知る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ツ: 東京, 2003.
- 道場親信, 『占領と平和-〈戦後〉という経験』, 青土社: 東京, 2005.
- 張炎憲 外, 『二二八事件責任歸屬研究報告』, 財團法人 二二八事件紀念基金會: 臺北, 2006.
- 陳翠蓮, 「歷史正義의 困境: 族群議題與二二八論述」, 『歷史館學術集刊』 第16期, 2008.
-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二二八事件研究報告』, 時報出版: 臺北, 1994.
- Eldridge, Robert D., 2001, *The Origins of the Bilateral Okinawa Problem: Okinawa in Postwar U.S.-Japan Relations, 1945-1952*,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 Lai·Myers·Wou, *A Tragic Beginning: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1947*, Stanford Univ. Press: California, 1991.
- Matsuda, Hiroko, "Colonial Modernity Across the Border: Yaeyama, the Ryukyu Island, and Colonial Taiwan", A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6.

Szonyi, Michael,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2008.

Abstract

## The Geopolitics of East Asian Border Islands and the Structural Causes of State Violence in the Establishment Phases of the Cold War

Minhwan Kim\*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cause of state violence in the border islands of East Asia after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in 1945 through a geopolitical understanding of these islands. Forming an axis that runs through Jeju, the Ryukyu islands, Taiwan, and Jinmen, these islands underwent rapid abrupt changes in their fate, especially in times of power transitions in the East Asia region. Most notable is the terrible violence that these islands suffered during the establishment phases of the Cold War. The basic idea behind the violence is the division of the living community. When these islands were integrated into the Japanese Empire, they functioned as robust local centers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formation of individual nation-states, however, these islands were relegated to the margins, and the exchange and communication of the past were put to an end by the formation of boundaries between nation-states. The situational violence that arises from the division of these living communities is very likely to convert into physical violence; indeed, the process of internal pacification played out in a particularly harsh and abrupt manner on these islands. To exacerbate the situation, during the formation of the Cold War system, the geopolitical situation of these islands and

---

\*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eir perceived function for the containment of the Communist sphere further amplified the violence associated with internal pacification. For the U.S. and its allies, these islands were outposts that needed to be secured at all at all costs; the loss of any one of them would amount to failure in the containment of the Asia-Pacific.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was due to the fatal combination of all three of these factors - the division of the living community, internal pacification, and violence for containment - that Jeju and Taiwan suffered terrible state violence.

Key Words: east asian border islands, geopolitics, state violence, the division of the living community, internal pacification, and violence for containment

교신 : 김민환 549-1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대우3차 아파트 306동 1306호  
(E-mail: [ursamajor@dreamwiz.com](mailto:ursamajor@dreamwiz.com))

논문투고일 2014. 04. 30.

심사완료일 2014. 06. 20.

게재확정일 2014. 06. 25.